

브라질 심해유전 대형투자 잇따라

BG, Repsol 이어 200억달러 투자 ... Petronas와 합작기업도 설립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형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에 따르면, British Gas 브라질법인은 11월17일 심해유전의 천연가스 개발에 2020년까지 최대 2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넬슨 실바 법인은 심해유전 개발이 본격화하면 브라질이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G 브라질법인은 상파울루에 접한 산토스만의 천연가스 심해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와 합작기업 설립에도 합의했다.

BG는 세계 22개국에서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20%의 심해유전 개발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스페인 에너지기업 Repsol-YPF도 최근 심해유전 탐사 및 석유 생산을 위해 2020년까지 2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psol-YPF는 앞으로 3-4년간 심해유전 탐사에 주력한 이후 2013년으로 예정된 석유 생산시기에 맞춰 집중 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심해유전의 석유 매장량이 최소한 800억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매장량인 140억배럴의 6배 가까운 규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8>